바르셀로나 통신(210424 / kpmabj@gmail.com)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시 29:11)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곳 바르셀로나의 상황은 조금은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은 안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페인은 지금까지 확진자 350 만명에 사망자 78,000 명으로 세계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확진자 10,000명 내외, 사망자도150명 내외로 보고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행을 위해서는 통행 허가증을 받아야하고, 보통의 식당과 카페테리아는 17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하고, 일부 테이크 아웃만 10시 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주일 예배와 주중에 한번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중에 한번 아가페선교회를 통하여 노숙인들을 상대로 빵과 음료(바겟트 빵에 올리브를 바르고 햄이나 치즈를 넣고, 따뜻한 커피와 주스를 제공함)를 나누어 주고있으며, 총회선교부를 통하여 어느 독지가로 부터 지원받은 마스크 500장을 매주 5-60명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필품(비누 치약 치솔, 속옷 양말 등)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기증 받은 헌 옷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꼬메도르에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지난 3월부터 조금씩 찾아 다니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바르셀로나 시내에는 약 20,000명의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인데, 서류가 없어서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흑인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일하다가 그것마저 힘들어지면서, 이곳 저곳 처마밑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도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놓은 상황이고, 일부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단체 등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팬데믹 상황이 빨리 지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난한 노숙인을 돕는 긍휼사역은 우리의 주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루마니아에서 온 신실한 가정의 막내 아들인 시몬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평일에는 칫과 기공사로 일하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청소를 하면서 헌옷, 신발, 가방, 전기기구 등을 정리하면서 많이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모아 두었던 짐들이 어찌나 많은지, 버리며 사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다이소와 같은 가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할 수 있지만, 여기 서민들은 아름다운 가게 등 을 통하여 중고나 재고품을 구하여 사용합니다. 보통

스페인 사람들은 그래도 사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어려움을 버텨나가지만, 서류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학교를 통하여 교제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아메드라는 청년이 있는데 최근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슬렘 청년인 아메드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번 한국 방문때 보았던 상황도 만만치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할줄로 확신합니다. 지금은 영적 가족들 중심으로 모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 볼 때인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들을 보내어 놓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바나 한 모퉁이에서 곽상호, 박현숙 올림.

*** 기 도 제 목 ***
1.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지나가도록...
2. 선교지 백성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3. 한국의 위정자들과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4. 선교사 부부와 자녀들이 깨어 기도 할수 있도록...
5. 총회 선교부와 후원교회들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 할 수 있도록...